

코로나19 경영난에 아르바이트까지...자영업자 '사투'

온종일 공장 컨베이어벨트에서 일해도 적자 감당 못 해 7개월 간 월세 밀려...공공일자리 구직 '하늘에 별따기' '호황' 배달 일 시작했지만 실제 수익엔 큰 도움 안 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로 생계 절벽까지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며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전남 화순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임모(33)씨는 17일 "건물 임대료 등을 충당하기 위해 두부공장과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육고와 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한 임씨는 5년 전, 대출 1억 원을 받아 헬스장 2곳을 개업했다.

지난 2019년 말 비로소 대출금을 청산했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코로나19가 급속 확산한 지난해 1~2월부터 헬스장 회원권 환불 요청이 빗발쳤다. 매출이 급락하면서 헬스장 1곳은 문을 닫았다.

방역 지침 강화로 에어로빅·요가 등 집단 운동(Group Exercise·GX)이 금지되면서 헬스장 회원은 월 평균 50명에서 10~20명으로 크게 줄었다.

임씨는 인건비·임대료 등 매달 5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지만, 최근엔 매달 200만 원 꼴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다시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

대출 이자라도 갚자는 심정으로 임씨는 평일엔 두부 공장, 주말엔 물류창고에서 일하고 있다.

임씨는 평일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두부 공장 유통 관리직으로 일한다. 공장에서 퇴근하면 곧바로 자신의 헬스장에서 개인 지도를 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토·일요일 주말 동안 물류 센터에서 배송 제품 분류 작업을 하고 일당 13만 원을 받고 있다.

주말 밤낮 없이 일해 매달 200만 원을 벌고 있지만, 헬스장 운영 적자를 메울 수 없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 임씨에게 공황장애까지 찾아왔다.

임씨는 "온종일 두부공장 컨베이어벨트 앞에서 있다보면 '내가 여기 있

으면 안 되는데'라는 자괴감이 든다. 하루도 편히 못쉬고 밤낮 없이 일만 했지만, 적자만 쌓이고 있다"며 "15년간 헬스만 바라보며 살았지만, 직업을 포기해야하나 고민이 많다"고 한숨을 쉬었다.

광주 광산구 한 유흥가에서 247㎡(75평) 규모의 노래홀을 10년째 운영 중인 한모(61·여)씨도 최근 지인 가게에서 부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여름 광주에서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한씨는 직격탄을 맞았다.

코로나19 감염 추이에 따라 방역 지침에 의거한 영업 금지와 재개가 되풀이됐다. 그 사이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겼다.

한달 중 보름가량 매출액이 0원을 기록하는 등 경영 악화가 지속되면서 직원 2명을 해고해야 했다.

가게 임대료가 7개월째 밀리면서 부채가 2000만 원에 이르자 한씨는

부업을 결심했다. 일자리를 구하는 일마저 쉽지 않았다. 지난해 6월부터 방역 지원·학교 주변 교통안전 지도 등 공공 일자리를 거듭 신청했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식당 허드렛일이라도 구하려 했지만 일자리가 마땅치 않았다. 한씨는 "60대가 넘으니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다. 지인이 운영하는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매장 재고 정리를 하고 매달 50만 원을 받고 있다. 적자를 메우기에 역부족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업주들이 겪는 고통을 정부가 분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유흥업소라고 해서 하루에 수십 명이 오가는 장소도, 매출이 수천만 원을 기록하지도 않는다"며 "객실 4~5개를 둔 영세 가게가 대부분이다"며 "정부 지원금 300만 원론 한달 월세를 겨우 내는 수준이다.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광주에서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38)씨도 매출이 줄어 올해 초부터 배달 아르바이트에 뛰어들었다.

박씨는 지난해 초 대출금 2억 원을 보태 165㎡(50평 규모)의 스터디 카페를 열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부터 지역 코로



16일 오후 전남 화순 모 헬스장 시설을 관광 임모씨가 소속하고 있다.

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매출이 개점 당시의 반도막으로 줄었다. 적자는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대출 이자와 월세·인건비 등 고정 지출 비용으로 500만 원 가량이 드는데 적자를 메우고 생활비라도 벌려면 부수입이 필요했다.

인건비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개업 초기부터 함께 일한 직원을 차마 내보낼 수 없었다. 대신 가게는 당분간 직원에게 맡겨놓고, 감염병 위기 속에서 '호황' 업종으로 꼽히는 배달업에 뛰어들었다.

경력을 갖춘 기사는 하루 평균 배달 물량이 40~50건에 달해 월 400~500만

원의 수익을 낸다.

난생 처음 배달을 하는 박씨는 호출 시스템이 익숙치 않고 운전이 서툴러 하루 20건 가량에 그친다.

배달이 늦어져 고객의 원성을 살 때도 잦아 스트레스가 크다.

박씨는 "월 400만 원을 목표로 부업을 시작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다. 적은 금액이지만 생계를 꾸리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내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오는 31일까지 2주 추가 연장했다.

신봉우기자



'오늘부터 카페서 커피 마실 수 있어요'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대구 달서구 이월드 내 카페에서 직원들이 방역작업과 테이블 정리를 하고 있다.

영암 관음사발 '코로나19' 감염 경로 '미궁'

"진술 의존 경로 찾는데 어려워...역학조사 진행"

전남 영암 관음사발(發) '코로나19'의 주민들간 전염과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현실화되고 있으나 첫 감염 경로는 미궁이다.

17일 전남도와 영암군 등에 따르면 전남 영암에서는 관음사 스님(전남 629번)과 접촉한 삼호읍 주민 2명 등 3명(전남656~658번)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 중 1명은 영암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는 광주 거주자로 최근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지난 14일 삼호읍 관음사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영암 20명과 강진 3명, 광주 1명 등 모두 24명으로 늘었다.

지역도 첫 확진자로 판명된 신도와 접촉한 도포면 주민들을 비롯해 확산면과 덕진면, 영암읍, 삼호읍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영암을 넘어 인접한 강진에서도 이달 초 관음사 종교의식에 참여한 흥덕사 주지를 통해 신도 2명이 감염돼 확진판정을 받았다.

개인간 접촉에 의한 감염도 이어지고 있다. 관음사 스님은 물론 신도와 접촉에 의해 감염된 주민들간 확진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스님(전남629번)에 의해 4명, 도포면 주민(전남641번)과 접촉으로 4명 등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관음사발 코로나19의 첫 감염경로는 아직 미궁이다.



영암에서의 코로나19 확진은 지난 14일 서울 금천구370번이 양성판정을 받은 이후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